

[경제]

초고유가시대... 정부, 속빈 유가 대책

“참고 견뎌라... 유류세 인하 불가”

“세금 깎아 고유가 대처하는 나라 없다” 주장 되풀이

난방용 연료 탄력세를 적용...서민 부담 줄이기 미흡

분석보다 크기 양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 광열·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상승압력이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돼 올해 연간으로 소비자 물가는 당초 예상했던 2.5%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또 이날 배포한 고유가 대책 참고자료에서 “유가가 100달러대(두바이유 기준)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다분히 ‘유류세 일괄 인하 불가’에 유리한 근거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난방용 연료 탄력세 효과 미미=고유가로 인해 서민층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대신 이날 들고 나온 카드

는 탄력세를 적용을 통한 난방용 유류세의 인하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프

로관, 취사·난방용 LPG 등 동절기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를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미 발표된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방안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 8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그간의 유가 인상분을 감안해 난방비 7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고유가 부담을 크게 지고 있는 서민층에게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부담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등유의 경우 8 당 90원이 불탄 특별소비세제가 63원으로 27원 내리며 LPG 프로관 및 가정용 LPG는 kg당 현행 40원에서 28원으로 고작 12원이 내리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국회 뒤편=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깎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2001년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25% 올랐지만 국민소득이 40% 가량 늘었다는 점 등을 유류세 인하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아직은 ‘국민이 견뎌만 하니 몸으로 견디라’는 게 정부의 메시지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36일 앞둔 상황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모두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과도한 유류세 인하를 위한 의원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날 정부의 세 인하허가부르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초고유가 속에 올 한해 국민들이 실력하게 일했던 유류세 일괄인하가 끝내 무산될 전망이다.

13일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정부와 대통합 민주신당 간의 정책협의에서 정부는 “세금을 깎아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는 기존 논리를 강경하게 고수하며 소득·소비 상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유류세 인하 대신 제시된 난방용 연료의 탄력세를 적용방안은 정부인이 실행되더라도 국민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미미해 서민들은 결국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은 사상 유례없는 유가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할 형편이다.

◇정부 논리는 “성장 전망 수정할 단계 아니다”= 정부는 일단 최근 유가 상승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와 같은 석유수입국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성장세 둔화로 이어진다. 아울러 석유제품의 가격상승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오고, 특히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간 괴리를 유발해 체감경기 부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고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모형에 의한

정부, 기름값 뛰면 소비 감소 예측 했는데... 3분기 차량용 휘발유 소비 급증

지난해 동기비 7% 늘어 판매량이 늘면서 올해 3·4분기 차량용 연료소매업(주유소)의 경상지수(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해 2006년 2·4분기(17.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차량용 연료소매업은 석유공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양을 기준으로 지수화하는데 경상지수는 기름값 상승분을 반영한 주유소의 전체 매출을 뜻하며, 불변지수는 유가상승의 영향을 제외한 채 순수하게 주유소에서 판매된 유류량을 의미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차량용 휘발유 제품의 소비는 1천659만8천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가했고, 경유제품의 소비는 같은 기간 6.4%가 늘어난 3천284만4천배럴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 내년에 더 오른다”

에너지 기관 속속 상향 전망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며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내년의 유가상승은 올해보다 더 속박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고유가 시나리오 하에서는 1·4분기와 2·4분기 평균가격이 각각 96.50달러, 99.50달러로, 3·4분기와 4·4분기에 더 오르는 쪽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전문 분석기관인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는 지난 6일 중동산 두바이유의 내년 평균가격이 현재보다 큰 수급상 장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평균 배럴당 70.56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CERA는 지난 9월 하순 전망에서

젊을수록 연금보험료 비싸진다

2009년 4분기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2009년 4·4분기부터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산출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연금보험의 가입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 수명을 똑같이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별 보험금 지급 전망과 상품 판매 규모, 계약 유지율, 보험사의 미래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또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생존을 전망해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는 책임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오를며 특히 기대 수명이 긴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반면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은 수명 증가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은 보험 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보험료가 조정되면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리 쌀 소중함 배워요” 광주시 농업인과 가족들이 농업인 축제에서 구형 탈곡기를 이용해 벼를 탈아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광주시지회(지회장 정성도)는 13일 제12회 농업인의 날(11월)을 기념해 500여명의 농업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무시민공원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도시 ‘브랜드 육류 타운’ 세운다

지리산 순한 한우·횡성 한우 등 고품질 저가 공급 농림부 축산물 발전대책... 2013년까지 10곳 조성 지리산 순한한우를 비롯해 횡성한우 등 전국 고급 브랜드 육류를 싼값에 맛볼 수 있는 ‘브랜드 육류타운’이 서울 등 대도시 근교에 세워진다. 농림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괄,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물 브랜드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도시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10개 안팎의 육류 브랜드 지정점을 모아 ‘브랜드 육류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타운내 지정점은 정육점과 음식점이 혼란된 형태로,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브랜드육을 직접 공급받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80억원을 투입, 시범적으로 서울 근교 2곳에 타운을 조성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한 뒤 오는 2013년까지 광주·부산 등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재 축산물 브랜드 800여개에 이르는 대도시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도 작고 영세해 ‘브랜드’로서의 차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브랜드의 통합과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계 어디서든 휴대전화 결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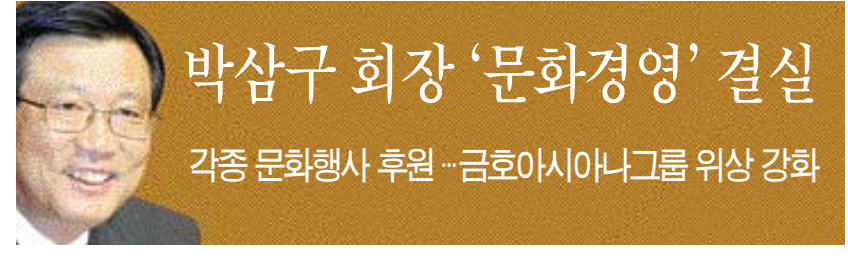
내년 상반기부터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는 물론 3세대(G) WCDMA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KTF는 13일 오후 마카오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콩그레스(Mobile Asia Congress)’ 행사에서 GSM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M-Payment) 서비스를 시연했다. GSM협회의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Pay-Buy-Mobile)는 총 13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전 세계 35개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다.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3GSM 월드 콩그레스(World Congress)’에서 KTF의 제안으로 공식 추진이 논의됐다. 이 프로젝트는 휴대전화에 탑재된 USIM 카드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기관 “사자”...코스피 반등

코스피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전날 급락세에서 벗어나 상승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9.47포인트(0.49%) 오른 1,932.89에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반발매수세에 힘입어 닷새 만에 반등, 전날보다 1.86포인트(0.25%) 오른 756.59로 마감됐다. 전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약 3개월 만에 다시 13,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4일째 하락했지만 이날 지수는 전날 급락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돼 5.36포인트(0.28%) 오른 1,928.78로 출발한 뒤 1,935선까지 올랐다. 이후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1,920선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1,887선까지 급락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저가 매수가 이뤄져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333억원, 5천356억원의 매수 우위였으나, 외국인은 8천706억원의 매도 우위였다. 이날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1998년 1월 이후 사상 세 번째로 컸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비차익거래를 중심으로 1천755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한눈에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한눈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기 위해 매매·상속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3차원 지도에 입력한 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부동산 거래내역, 매매가 수준 등 모든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지도에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주변지역 또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거나 매매가가 높아 투기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전자지도상에 자동으로 ‘붉은색’ 등으로 표시되도록 해 조기에 투기지역 지정, 투기단속 등에 나설 수 있다.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지



박삼구 회장 ‘문화경영’ 결심

각종 문화행사 후원...금호아시아나그룹 위상 강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문화경영을 통해 대내외 그룹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 다양한 음악·전시회·문화행사 등을 적극 후원하면서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해외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처럼 박 회장이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경영에 앞장서는 이유는 주요 고객을 단순히 사업상대로 만나는 것보다 문화 행사를 통해 자연스레 만나야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해외 문화행사를 개최하면 박 회장이 해당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져 투자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박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15주년을 맞이해 지난 12일 서울에서 막을 올린 베트남 문화주간 행사를 후원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인사들을 대면할 기회를 가졌다. 현재 금호아시아나는 베트남 호찌민에 타이어공장과 함께 아시아나플라자 건설사업을 승인받았으며 호노이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문화행사 후원이 베트남 정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

발기부전치료제 고개 숙이나

美 FDA 청력 이상 경고 부작용 논란속 매출 증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부 발기부전치료제 사용에 따른 ‘청력 이상’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국내 발기부전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FDA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제5형 포스포디에스테라제’ 억제제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일시적인 청각 소실의 위험성 표시를 더 두드러지게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4월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례가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이래 FDA가 총 29건의 비슷한 청각소실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그러나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제 치료제 시장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일반적이다. 지난 2003년 488억원이던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2004년 64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 690억원, 2006년 760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403억원이 기록됐다. 이번 청력 이상 부작용을 계기로 토종 발기부전제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케미칼관계자는 “비아그라에 비해 발기부전치료에 관여하는 효소에 선택성이 높고, 다른 유사 효소에 대한 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작용 발생 위험도 비아그라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지도 시스템 구축

거래·매매가 정보 제공 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가격·소유자·지번·지역·주소 등 부동산 관련 15개 정보는 모두 서류형식의 아날로그형 정보에 불과해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전국적인 실체와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부동산 정보를 ‘전자형 전국지도’에 입력해 전국 단위 특성과 현황이 3차원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